

## 회 의 록

회의명		2022년도 제4차 대학평의원회				
일 시		2022. 10. 25.(화) 16:00 ~ 17:00				
장 소		대학본부 별관 CNU Hall				
의 안		[제4호] 대학 통합 논의 시작에 관한 사항				
심의사항		[제4호] 대학 통합 논의 시작 여부				
의 안 요 지		○ 한발대와의 대학 통합 논의 시작 여부				
참석 현황	참석 대상자	22명	위임 내역	위임장 제출: 3명 류광해, 서영식, 이택승	참석자	참석자: 19명 신희권, 이향배, 서보국, 정주영, 이후승, 손정훈, 조강희, 전정임, 조성범, 김태섭, 김지수, 윤난희, 이재훈, 김필형, 최종규, 송요한, 최인용, 고성민, 전득수
	참석자	19명				
	불참자	0명	불참 내역			
주요 발언내용						
<div>■ 성원 보고</div> <div>○ 교무팀장(○○○): 재적위원 22명 중 위임 3명 포함 22명 참석</div> <div>■ 개회 선언</div> <div>■ 전차 회의록 낭독</div> <div>■ 의안 제4호 심의</div> <div>○ 의장(○○○): 제4호 안건 대학 통합 논의 시작에 관한 사항 상정</div> <div>○ 기획처장(○○○): 회의 자료에 따라, 제4호 안건 제안 설명</div> <div>○ 의장(○○○): 의안 대학 통합 논의 시작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겠음.</div> <div>○ 의원(○○○): 통합 논의 시작에 대해 학생들은 압도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으나, 학무회의에서는 전원 합의로 결정되었다고 함.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학생들을 설득하지 못했음. 이대로 논의가 시작된다면 학생들은 반발할 것이고, 학생회장으로서 학생을 위한 일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div>						

- 의원(○○○): 학생들이 통합 논의 시작에 대한 찬반 의견을 냈는지, 아니면 통합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냈는지 궁금함. 어떤 논의라도 논의 시작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함. 학생들의 반대가 96%까지 나오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
- 의원(○○○): 전문을 만들어,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시작했음. 부연 설명과 타임 라인을 정리해서, 논의 시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함. 통합 논의 시작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학생의 의견임. 이전 총장 선거의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을 고려했을 때, 이번 통합 논의 관련해서도 학생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음.
- 의원(○○○): 학무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지?
- 기획처장(○○○): 학무회의에서도 학생들이 논의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음. 5개 직능단체의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서는 학무위원들의 이견은 없었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시작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전원 합의가 있었음. 향후 직능단체의 많은 구성원이 참여해서 많은 의견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 과정이 전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음.
- 의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함. 오늘 결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좋겠음.
- 기획처장(○○○): 본부와 학무회의에서는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 시작 심의를 거친 후 자세한 계획을 설명하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했음. 그동안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공개하지 않은 점은 이해 부탁.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논의위원회, 기획위원회 등의 계획이 있음.
- 의원(○○○): 총학생회 입장에서 학생들의 반대가 명백하니, 이 정도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있는지?
- 의원(○○○): 최종 투표를 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비율이 산정되어야 함. 논의 단계에서 어떤 위원회가 결성되어서 학생들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을 것임. 그런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최종 투표 비율을 적용해야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음.

- 의원(○○○): 학생들의 유효투표율이 왜 낮았는지 설명 필요.
- 의원(○○○): 투표 대상에 재학생과 휴학생이 포함되어있고, 재학생이 더 많은 의견을 냈음. 통합 논의에 관해 관심은 많으나,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음.
- 의원(○○○): 공청회, 설명회로 설명 횟수는 충분했으나 내실이 부족했음. 본부와 학생 간의 다양한 질의 중에 학생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사실과 대비책이 마련되었느냐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었으나, 통합 논의 시작 전, 모델 수립 이전이라는 대답만 있었음. 학생의 참여율이 낮고, 학생의 투표율이 낮다고 학생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지?
- 의원(○○○): 학무회의에서 직능단체 의견 수립 결과를 해석하는 방식이 궁금함. 5곳 중에서 4곳이 찬성했으니, 해볼 만하다는 1:1:1 방식인지 아니면 어떠한 임의의 비율로 한 것인지 궁금함.
- 기획처장(○○○): 1:1:1 방식이기보다는 직능단체별로 나눠서 평가했음. 통합 자체에 대한 상황이라면 이런 비율이 정확하게 적용되어야 함. 교수, 학생, 직원, 조교, 동문의 참여도, 의견 수립 결과지를 바탕으로 논의 시작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학무위원들이 판단하고 전원 통과를 했던 것이지, 비율상으로 한 것은 아님.
- 의원(○○○): 구성원 대다수가 논의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여, 의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음. 한발대에서 총장 임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대학평의원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언제 공표가 되며, 어떻게 안을 짜는지 궁금함.
- 기획처장(○○○): 한발대에서도 논의 시작과 관련된 설문조사가 교수, 학생, 직원에게 진행됐음. 총장 임명 이후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날 것임. 학무회의 때 발표를 못한 이유는 대학평의원회를 거쳐야 했기 때문. 상대교가 총장 임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를 시작하기에는 어렵지만, 논의 시작 전에 흩어졌던 의견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 반대가 심한 단과대학의 의견은 제대로 듣지 못했음. 논의 시작 전에 휴지기, 즉 인큐베이션 시간을 가지면서 통합의 원칙 안을 만들고자 함. 원칙 안을 준비하기까지 두 달 정도 걸리고, 통합안이 준비되면 직접적으로 상대교와 협상 예정. 그전에 소홀했던 부분은 청취하고, 정리하여 협상테이블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할 계획임.

- 의원(○○○): 한발대가 통합 논의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단계인데, 우리 대학이 통합 논의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기획처장(○○○): 상대교의 총장 임명이 예측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임. 논의가 시작되면 구성원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 등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음.
- 의장(○○○): 기존에 통합된 다른 대학의 사례를 보면, 학생들의 반대가 심해도 통합이 이뤄지기는 어려움. 우리는 논의 시작에 대해 심의를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통합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대학평의회를 거칠 것. 그런데도 최종적인 판단은 총장이 함. 예를 들어, 이 정도면 적절한 비율이 나왔고, 교육부, 정치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그럴 만하다고 총장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것. 그때도 90퍼센트 이상이 반대한다면 통합이 어려움. 한발대에서도 통합 모델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수. 교육부에서는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어떻게 거쳤느냐를 참고하게 되어 있음. 통합 논의 시작 개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논의 시작은 진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통합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 충남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치열하게 논의해야 함. 충청권, 대전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고, 대학 본부가 더 노력해서 좋은 통합 모델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음. 의장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냈음.
- 의원(○○○): 학생 대표들의 차분한 질문과 태도에 경의를 표함. 논의 시작 반대는 통합 자체에 대한 반대가 대부분일 듯. 논의를 시작하고 모델이 나오면 의견이 갈릴 것으로 생각함. 일단 논의를 시작하고,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녹여내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맞음.
- 의원(○○○): 다른 대학의 경우처럼 단과대학 재분배가 통합으로 인해 혼란을 겪게 되는 것과 브랜드 가치 하락이 우려스러운 것. 결정 단계에서 학생들이 압도적인 수치로 반대한다면, 통합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명확한 자료를 남겨놓아야 우려들이 사라질 것임. 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우리는 그러한 자료들을 남기기

위한 일들을 할 예정.

- 기획처장(○○○): 국립대학교 통합 설치령에 따르면, 통합안이 반드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음. 대학평의원회의를 거치지 못하면 교육부에 제출 자체가 안됨.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통합은 흐름이지만 학생과 지역사회의 잡음이 없는 통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이 있었음. 교육부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통합은 승인할 수 없다고 함. 투표 외에 학생, 직원, 지역사회의 의견까지 충분한 의견 수렴이 반영된 안이 나와야만 결국 통합에 도달할 수 있음.
- 의원(○○○): 논의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가 갈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임. 우리 대학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교와의 협상 즉, 각각 자기 구성원들이 유리한 구조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 통합 이후에 최대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논의 시작의 목적. 논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통합으로 인한 피해나 시너지 등을 논하는 것은 협상 파트너에 대한 예의도 아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러한 우려를 해소해야 함. 통합을 반대하기 때문에 논의 시작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오히려 학생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음. 학교에서도 그러한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 의원(○○○):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려면 유효투표를 수치부터 올려야 할 것. 본부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학생들의 요구를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타임테이블을 짜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주길 바람. 그 후에도 학생의 의견 수렴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때 통합 논의를 중단하는 것을 제안.
- 기획처장(○○○): 체크리스트를 받아서 자세한 계획 준비하겠음. 설명회 때 학생들의 우려나 피해에 대해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번 설명했으나 전달되지 않아 아쉬움. 일방적 설명회와 학생들의 우려 사항을 듣는 공청회 정도여서 좋은 지적으로 생각함. 학생들과 계속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좋은 방안을 만들겠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통합을 중단할 것임. 논의 시작하기까지 많은 분의 노력과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과 충분히 논의할 기회를 얻겠음.

- 의원(○○○): 학생들에 대한 편견이 많아 보임. 단순히 학과들이랑 섞이기 싫은 것이 아님. 학생들의 피해 중 여러 가지 예시를 들었을 때, 충남대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는 어려운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었음. 추후 논의 단계에서 학생 입장을 고려하기를 제안함.
- 의장(○○○):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큰 규모로 캠퍼스가 조성됨. 세종 캠퍼스를 포함한 캠퍼스별 특성화에 대해 확실하게 하고, 구체적인 통합모델이 만들어지고 나면 여러 번의 설명회를 하겠다고 함. 기존 재학생이나 직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특성화는 제대로 해서 충남대가 거점대로서 다시 한번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음.
- 교무처장(○○○): 지금은 논의 시작 단계로 통합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 학교에 성공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시작하였음. 학생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세부 계획상에 담아 내는 것이 더 중요함. 시작 자체가 통합으로 직결된다고 하지만, 논의 시작보다 그 과정이 더 어려울 것임.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원, 직원들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지금부터가 더 중요함. 향후 10년, 20년 뒤 충남대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모든 구성원이 결정해 나가야 하고, 그런 안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 교무처에서는 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안을 내고, 의견을 많이 묻겠음.
- 의원(○○○): 의사 결정 단계에서 과연 학생의 의견이 유의미하게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두려움이 있음. 이후 진행되는 공청회에서 통합에 대한 필요성, 미래 가치를 넘어서 학생들이 원하고 궁금해 하는 대비책들이 더 활성화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음.
- 의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협의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시에는 통합을 중단하겠다는 것이 문서상에 남아야 함. 통합 논의를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준비하는 두 달의 과정 동안에 그러한 문서를 남기는 작업에 대한 도움 요청.
- 의장(○○○): 회의록을 정리하면 그 부분이 언급되어 있을 것임. 회의록에 남아 있는 것을 차후 전차 회의 보고할 때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정도면 됨. 상대교와 협상할 때의 상황을 고려해야 함. 다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개선해나가는 중에 총학은 12월 31일에

구성원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의원(○○○): 인수인계가 잘되도록 노력하겠음.
- 의장(○○○): 추후 통합 모델이 나왔을 때 학생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전제로 한발대와의 통합 논의 개시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 의원(○○○): 학생회장 입장에서는 통합 반대를 주장하는 학생들에게 비판받을 수 있는데 학생의원이 어떻게 발언하면 되는지, 다른 의원들이 최대한 도와줄 방안 찾기를 제안함.
- 의장(○○○): 완전한 일치는 아니지만, 소수의 의견과 다수의 의견이 같았고, 다수의 의견으로 수렴됐다 정도로 정리하고자 함. 학생 대표들은 소수 의견을 끝까지 견지했다가 될 것임. 최종심의 결과는 소수 의견을 받아들여서 통합 논의 개시는 수용하되, 통합 논의를 할 때 이런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하고자 함.
- 의원(○○○): 대학평의원회 심의가 통과된다고 하면 행동을 나설 수밖에 없음. 이것이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가 잘 진행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 납득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구조를 최대한으로 이끌기 위해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
- 의장(○○○): 안전인 통합 논의 시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수 의견, 다수 의견이 있었지만, 통합 논의 개시 여부를 다수 의견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함. 기타 논의 사항이 있는지? 기타 논의 사항은 없으니, 이상으로 2022년도 제4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를 마치겠음.

#### ■ 심의결과

- 안전 제4호: 한발대와의 대학 통합 논의 시작을 수용함.

#### ■ 폐회